차 례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절세의 위인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과시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어머니당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22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날을 따라 그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 30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쳐온 빛나는 력사 3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46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 58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 6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울데 대한 탁월한 사상리론 78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완성된 리론 86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다 95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
하는 불멸의 기치 102
청년강국의 본질과 특징 109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 116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 123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절세의 위인

[2016-01-06]

태양의 위업을 받들어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현대정치가, 현대군사가의 귀감》, 《세계적인 수준을 돌파해나가시는 리상형의 지도자》, 《혜성처럼 솟아오른 젊으신 령도자》라는 위인칭송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한 나라의 국력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관계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를 이끄는 국가지도자의 령도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력사가 밝혀주는 철의 진리이다.

한때는 유구한 력사와 민족적전통, 독특한 문화와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과시하며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었던 나라들이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매장량과 일인당 국민소득에서 세계적지위를 자랑하던 나라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난탓에 나라의 자주권이 짓밟히고 지어는 인민들이 현대판노예의 운명에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또 한분의 백두산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대를 이어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기상이 만방에 떨쳐지고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며 더 밝고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불세출의 령장이시며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받들어올린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위력이 있고 존엄과 영예가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령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혁명령도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혁명위업의 계승자, 후계자가 지녀야 할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시였다. 일찍부터 혁명의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군사에 정통하시고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추신 백두산형의 장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주체혁명의 향도자인 우리 당의 존엄이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의 기상이며 우리 당의 위력은 위대한 강철의 령장의 탁월한 령도력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혁명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령도자의 자질과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리론적예지이다. 비범한 예지로 력사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멀리 앞을 내다볼줄 아는 위인이라야 시대와 력사발전을 옳게 주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혁명령도의 계승의 시기는 혁명실천에서 해답을 기다리는 수많은 리론문제들이 제기된 중대한 시기였다. 우리 당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빛나게 총화하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진군을 어떻게 전진시켜나가야 하는가 하는 시대적과제가 제기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우리 당과 혁명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뿐아니라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련이어 발표하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시려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로작들을 자자구구 깊이 연구하시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끝없이 흐르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예지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백승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비범한 선견지명이며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단번에 바로잡아나가시는 사상리론적예지이다. 불타는 열정으로 일관된 진취성,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의 비밀을 독파해내는 다면성, 한점을 꿰뚫어 천만가지를 터득하고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걷어쥐는 분석의 예리성과 심오성 그리고 있는것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 새것을 찾아내는 창조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활동에 일관되여있는 근본특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주, 사회주의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좌표로, 기본주로로 내세울데 대한 사상과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명철한 군사적전략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경제관리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명안도 내놓으시였다. 농업과 경공업, 과학기술발전과 건축, 축산과 수산, 양어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답을 주시지 않은 분야란 없으며 철의 론리와 주옥같은 명제들로 가득찬 사상리론적저술능력 또한 전무후무한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적예지에 의하여 곧바른 항로를 따라 나아가고있다.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에 정통하시고 그 어떤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예지는 만사람을 경탄시키고있다. 이 세상 위인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크나큰 영광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탁월한 혁명령도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였다.

우리 조국이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수호전은 그 폭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수호전과는 다른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된다. 이미 이룩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와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령군술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과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반합선로케트시험발사,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 등 각 군종, 병종들의 훈련과 연습들을 직접 발기하시고 지도하시여 빈말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멸적의 기상과 필승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하심으로써 치렬한 반제대결전마다에서 련전련승만을 안아오시였다.

2015년 8월에 전쟁전야에로 치달아올랐던 엄중한 군사적긴장상태가 급전되고 북남공동보도문이 합의발표되여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우는 중대한 전환적계기가 마련된것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투쟁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자면 천만대중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세련된 조직적수완과 특출한 령도예술이 있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는 첫시기부터 뛰여난 정치실력으로 천만의 심장을 단번에 틀어잡으시였다.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판단력,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방법,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최단기간내에 끝내는 강한 조직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에 그대로 구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령도,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대한 다방면적인 령도이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는 전화위복의 령도,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천만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인민적령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특출한 령도예술로 한점의 혁신적인 불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여 거세찬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시고 국토건설과 체육, 보건과 음악예술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일시에 성공의 열매들이 주렁지게 하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모란봉악단공연과 같은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공연이 온 나라 천만군민을 새로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인민군군인들이 창조한 《마식령속도》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능란하게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세기적인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가닿으면 뒤떨어졌던 단위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단위가 되고 막혔던 고리도 순간에 풀린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일군들에게 세계를 보는 안목도 틔워주시고 최첨단돌파의 종자도 찾아주시며 해당 부문의 전문가, 기술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해결의 열쇠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환희를 터친 이야기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통하여 자기 단위 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를 찾고있으며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언제나 성공한다는것을 절대의 진리로 간직하고있다.

하늘이 무너진대도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순간의 지체를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조와 건설의 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져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꽃펴났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꾸려진 의료봉사기지들만이 아니다.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그리고 하나의 도시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평양강냉이가공공장, 새로 개건된 평양메기공장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주체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며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전당 등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이 위대한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세기적기적을 창조하며 강국건설을 힘차게 밀고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켜나가도록 하신다.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행복이 날에 날마다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특히 주체104(2015)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로 장식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영웅적신화를 창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실력에 매혹된 세계인민들과 남조선각계층속에서 경탄과 찬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남조선인터네트들에는 《천하를 제패하는 **김정은**위원장님의 그 모습에 우리는 정말 매혹되였습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성격이 파격적이시고 실리적인 지도자이십니다.》와 같은 절세위인칭송의 글들이 수많이 게재되고 서울을 비롯한 도처의 노래방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칭송하는 노래들이 울려나왔다.

한없이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으로 우리 인민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 조국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한없이 숭고한 인덕으로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베푸는 정치지도자를 모시는것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령도자는 천하를 얻는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품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그 시기에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이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에는 새집들이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시여 사랑의 축배잔을 부어주신 이야기도 있고 섬방어대 군인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신 혁명일화도 있으며 조국의 바다 지켜 위훈을 세운 동해의 용사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가슴뜨거운 사연도 있다. 도당책임비서, 시, 군당책임비서들에게 직접 과업을 주시여 그들이 육아원, 애육원, 학원의 아이들과 양로원의 늙은이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도록 하시고 특히 부모잃은 아이들을 한점의 그늘없이 밝게 키우도록 하신 인민의 어버이가 바로 우리 원수님이시다.

소년단원들로부터 청년학생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로병들을 비롯한 그 누구나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절절하게 노래하는 우리 사회야말로 원수님의 인덕으로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르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이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속에서 평범한 사람들도 온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나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꽃펴나고 나라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재생의 길을 걷는 꿈같은 현실도 펼쳐지고있다. 한번 정을 주고 믿음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끼고 믿어주며 내세워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이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 하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였다.

지금도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력사의 험한 풍파속을 뚫고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는 령도자는 많고 많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 위대함까지도 인민에게 돌려주시며 인민에게 허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오직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시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최대의 특전이고 행복인것이다.

남조선의 많은 언론들은 10월의 하늘가로 울려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내용에 대해 《당의 힘은 인민의 힘이며 당의 승리는 인민의 승리》, 《인민대

중제일주의실현》등으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그이께서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70 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진정을 토로하시였으며 인민과 끝까지 일심단결의 길을 걸어갈 신념과 의지를 굳히시였다고 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인민에 대한 감사〉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다짐하는 말로 마무리된 연설》,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이라는 내용으로 관통된 연설》이였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조선로동당이 인민제일주의에 방점을 두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계속 펼쳐나갈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전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 헌신으로 불타는 뜨거운 인민관으로 일관되여있다고 칭송하고있다.

정녕 우리 천만군민의 운명도 미래도 한품에 안고 끝없이 광명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령도자로서 지녀야 할 실력과 풍모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과시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2015 년 1 월 27 일]

절세의 위인적풍모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비상히 강화하시고 그 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과시해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에 온 나라에 총진군의 나팔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원자탄보다도 위력한 필승의 무기입니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며 그 승패는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을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시키는것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친 혁명의 주체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거할 때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운동을 전진시켜나갈수 있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과시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하시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조선민족의 본때,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누리에 떨쳐나가도록 하시였다.

비범한 위인적풍모와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는 한 그 무엇도 부럽지도 두렵지도 않은 우리 인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한편의 노래가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내 심장의 목소리

1.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어머니께 아뢥니다
꾸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터칩니다
그러면 정깊은 어머니 그윽하신 그 눈길로
기뻤던 마음도 아팠던 상처도 따뜻이 헤아립니다

2. 사랑 아니면 들수 없었던 아픈 매도 들어가며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그 품속에 안겨들며
숨겼던 잘못도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터놓습니다

3. 그 품에 자란 천만아들딸 한마음 우러르며
생을 주시고 빛내여주신 어머니를 따릅니다

사심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만을 사랑할 마음

어머니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영원히 안기렵니다

당이여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영원히 받들렵니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은 돌부처가 아닌 이상 사업과 생활과정에 과오를 범할수도 있고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을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불사신들로 키울수 있다고 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의 절대적지지속에 백승을 안아오는 위대한 정치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며 사회주의붉은기를 견결히 수호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안아온 근본원천이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로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강화되였으며 이 위대한 단결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과시해나가고계신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과시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사회주의수호전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반사회주의적요소와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철저히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제국주의반동세력과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오늘 제국주의반동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봉쇄하며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제재와 압력으로 우리의 일심단결을 어째보겠다는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혁명의 총대를 높이 드시고 인민과 인민군대의 단합된 힘, 군민대단합에 의거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사회주의수호전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 먼저 일심단결을 이룩하여야 혁명의 주체의 일심단결을 실현

하여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나날 인민군대에서 최고사령관과 장병들사이의 혼연일체, 지휘관과 병사들사이의 관병일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혁명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에 기초한 군민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군민대단합은 우리 사회의 밑뿌리로서 그것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인민과 인민군대가 하나의 사상, 투쟁기풍에 기초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여야 오만무례하게 날뛰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혁명령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반제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할수 있었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과시해나가고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과시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위대한 나라이다.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높은 존엄과 국력을 지닌 강대한 나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번영을 이룩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강국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의 엄혹한 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사회주의수호전에서뿐아니라 강국건설에서도 앞장서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되고 동지들에 대한 헌신성이 자기희생성으로 온 집단안에 높이 발휘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자기 령도자를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군대로 위용떨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을 맡아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선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 경제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가져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그러므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은 더욱 강화되게 되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게 된다.

2014 년 한해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력사와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탁월한 혁명령도로 천만군민을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시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국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과시해나가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세상이 열백번 뒤집히고 지구가 깨여진대도 오직 한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해나가려는것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억년 드놀지 않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체조선은 언제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해나갈것이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가져올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 조국통일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어머니당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2015-10-08]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의 당건설위업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진군길에서 이룩된 우리 당건설의 빛나는 성과의 하나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이 뚜렷이 부각된것이다. 위대한 어머니당,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고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표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추켜들고오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본성이며 기본특징이다.

오늘 우리 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전반에 확고히 구현해나가고계시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한평생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매한 인덕과 령도풍모

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위업을 이어 우리 당을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그대로 계승하시고 우리 당을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해나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 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후대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풍모는 언제나 인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시며 그들의 자그마한 소원도 정책에 담으시는 세심하고 사려깊은 어버이의 인덕이고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고 넓은 품에 정히 안아 끝까지 보

살펴주시는 혈연의 정이며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멸사복무의 인생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도 담겨져있고 우리 인민들이 절절히 부르는 《내 심장의 목소리》, 《인정의 세계》와 같은 노래들에도 어려있으며 어린이들의 행복의 요람인 육아원, 애육원들과 소년단야영소들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령도자의 인덕과 풍모가 숭고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품으로 되고있다. 당은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이 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기 위해 투쟁하고 인민은 고마운 당에 마음속진정을 다 아뢰며 충성으로 받드는 이것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참모습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넋이고 한생의 전부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 활동의 출발점으로, 근본초석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이야말로 참다운 인민의 당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을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람찬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이다.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삶을 빛내여주는 당을 마음의 기둥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

자식의 마음은 어머니가 제일 잘 아는 법이다. 우리 당은 인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있다. 권력이나 강요로 얻을수 없는것이 민심이다. 권력이나 강요로 얻을수 없는것이 민심이라면 그 민심을 움직이는것은 진실하고 숭고한 믿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그들을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일으켜 내세워주도록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대사가 실시되고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에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인 학생은 나라앞에 죄를 지은 사람의 자녀들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대표로 참가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한품에 안아 혁명가로,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품이 우리 당의 품이며 그들의 정치생활에 자그마한 흠집도 남을세라 세심히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품도 바로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중을 전취하는데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며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나라앞에 엄중한 죄를 진 한 일군의 1%의 량심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여 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재생의 삶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은 오늘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숭고한 사랑으로 천만사람들에게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위대한 믿음으로 혼연일체의 대화원을 가꾸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야말로 자식을 위해 온넋을 다 바치는 어머니의 사랑의 품 그대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다. 어머니당이라는 호칭은 그 누가 지어낸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심장의 웨침이다. 우리 인민들이 가슴속에 품고있는 생각도, 움터나는 희망도 당에 스스럼없이 터놓고 곡절많은 운명의 눈물겨운 사연도 편지에 담아 다 아뢰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적관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은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있고 인민은 당과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진 여기에 어머니당의 공고성이 있고 불패성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빛나게 계승하고 모든 당사업이 민심중시로 확고히 전환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머니당건설에서 이룩하신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을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행복을 꽃피워주는 참다운 인민의 당으로 건설해나가시는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혁명적당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당만이 민심을 틀어쥔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될수 있다.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며 인민에게 호령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어떤 세도와 관료주의, 특전과 특혜

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것은 우리 당의 투철한 립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전하고 전개하시는 모든 사업은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그 어떤 관용도 모르는 정치이며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신다. 우리 당이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척후병이 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신것은 전당에 인민관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세계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새로운 정치경륜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에 경탄을 금치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이 사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것을 철칙으로 삼고계신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어떤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시고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럽없는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의 길을 걸으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들이 살아야 할 집인데 이사하기 전에 자신께서 먼저 들어가봐야 한다고 하시며 새로 일떠서는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무엇인가 더 주고싶으시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 그대로이다. 하나의 창조물, 하나

의 제품을 보시면서도 인민들부터 생각하시며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것은 단호히 배격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우리 인민은 그이를 친어버이로 끝없이 믿고 따르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는 나라의 정세가 형언할수 없이 어려운 속에서도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체 인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고 있다. 한푼한푼의 자금이 귀중한 때에 인민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인민을 위한 문화휴양지들과 병원들, 극장과 급양봉사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된것은 인민적인것이 최대로 우선시되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는 릉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과 로라스케트장들에도 비껴있고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들에도 어려있으며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도 그대로 스며있다. 인민의 리익속에 국가의 리익이 있고 인민의 행복속에 사회주의의 참다운 모습이 있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주체의 인민관이 꽉 들어차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사업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작전과 설계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놓고 전개되고있으며 사업총화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일군으로 평가되고 인민생활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당조직이 전투력있는 당조직으로 되고있는것이 우리 당의 참모습이다.

당이 진정한 어머니가 되면 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한 혈연의 뉴대가 이루어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숭고한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펼쳐나가시기에 오늘 우리 당의 투쟁목표와 활동방식도, 모든 당사업방법과 사업기풍도 인민을 위한것으로 확고히 지향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에서는 사소한 변색도, 한치의 탈선도 없다.

오늘 우리의 당기는 사나운 폭풍도 시련도 다 막아주고 만복을 안겨주는 희망의 표대로 되고있다. 어머니당을 따라 사상도 하나, 신념도 하나, 발걸음도 하나가 되여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려는것이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조선로동당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해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며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날을 따라 그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 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

[2016-09-16]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지만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안겨주는 사랑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을 위한 제도이며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로력으로 날을 따라 더욱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사회제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변화된 국제적환경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정치사상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갔습니다.》

사회제도는 사람을 위한것이며 사람에게 복무하여야 한다. 그런것만큼 해당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의 어떤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있는가 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있어 우리 인민의 오늘의 존엄

과 행복뿐아니라 희망찬 미래까지도 담보되게 되는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마치도 《우월한 사회》, 인류사회발전의 《최고단계》인것처럼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러나 력사와 현실은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인민대중의 리상과 념원이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사회, 자본주의가 흉내낼수 없는 가장 우월한 사회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현실로 더욱 활짝 꽃피우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그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는것은 **우선**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계급이 출현한 때로부터 수천년의 력사가 흘렀으나 어느 시대를 망라하고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나선 때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우시고 빛내여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에만이 인민이 사회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수 있었다.

자주적존엄과 권리는 사회적인간의 생명이다. 사람은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만이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다. 물질생활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하여도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인간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며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과 행복이란 생각할수 없다.

나라의 자주권이 강탈당하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받는 인민에게는 결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나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시는 절세의 위인을 대를 이어 모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들에게 모든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고있으며 인민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있다.

지하막장에서 석탄을 캐고 전야에서 곡식을 가꾸는 로동자, 농민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나라의 정사를 론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과 근로단체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에서 정치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고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누구나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로동할 권리, 휴식할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으며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은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참모습이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보장해주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진정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제도라는것을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이런 현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하는 인민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며 착취와 지배의 대상으로 되여 그들에게 차례지는것은 오직 천대와 멸시뿐이다.

말그대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락원이라면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지옥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는것은 **또한**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화원의 참모습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멸사복무정신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사상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는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삼고있다.

그것은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정세가 극도로 첨예한속에서도 무료의무교육제와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어린이 보육교양제와 근로자들이 정휴양제가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도 학교들에서는 아이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중단되지 않았고 앓는 환자를 위해 의사들이 찾아가 치료하는 무상치료제의 인민적시책이 한시도 중단된적이 없었다. 자금이 그처럼 귀중한 때에 명산, 명승지들과 온천, 약수터, 동서해의 백사장들에는 수백개의 정휴양소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지어 휴양소, 료양소에 오가는 왕복려비도 국가가 부담해주었다.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제와 정휴양제의 실시,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의 실시 등 우리 인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헤아릴수 없이 크며 그것은 날을 따라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적복무의 자욱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과 문화휴식터들,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세계적인 건축물들마다에 새겨져있고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들에 넘쳐나는 행복의 웃음소리에도 뜨겁게 어려있으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거창한 시대적흐름에도 력력히 비껴있다.

인민들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이고 의지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사상에 그대로 맥박쳐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행복한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되여가고있다.

재난의 난파도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희한한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라선시의 큰물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안겨주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류원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자라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변모되였다.

당도 군대도 정권도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복무자이기에 불밝은 새집의 창가마다에서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각지의 명승지와 곳곳에 정휴양소들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몇명의 섬마을 아이들을 위해 학교가 서고 인민의 생명을 위해 사랑의 비행기가 날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자본주의사회가 가질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실지 목격하면서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알려면 조

선에 와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자본주의가 복귀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류혈참극들과 끝없이 흐르는 피난민행렬을 통하여 우리 천만군민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차넘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귀중함을 페부로 절감하고있다.

—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향유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사람들은 문명한 생활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다 문명한 생활을 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사회제도에서만이 사람들이 진정한 문명의 향유자로 될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에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인간사랑의 화원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릉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릉라곱등어관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인민의 기쁨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속에 궁궐같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양로원이 훌륭히 꾸려져 늙은이들이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흥겨운 노래속에 행복의 삶을 누리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최대의 속도로 벌려나가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끼고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이 응축된 과학기술전당이 짧은 기간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멋쟁이건축물로 완공되였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비행기가 날고 지하에서는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전동차가 달리게 되여 온 나라를 기쁘게 해주고있다.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건축물들과 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꽃펴나는 시대에 수도 평양에 펼쳐진 우리 식의 특색있는 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세계에 몇개나라에서만 만들수 있다던 인공지구위성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 쏴올리는 기적을 창조하는것은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긍지높은 현실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신비로운 속도로 강산이 변하고있는 이 놀라운 현실은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인민중시정치의 거대한 생활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한 외국인은 방문기간 조선의 사회제도가 인민을 위한 제도라는것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고있으며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있다. 모든 정책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펼쳐지고있는 조선은 진정 훌륭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이라고 하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절대적우월성과 위

력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하며 멀지 않아 이 땅우에 통일되고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게 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쳐온 빛나는 력사

[2015-08-26]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승리의 력사이다.

미덥고 끌끌한 청년대군을 키워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한것은 우리 혁명의 가장 큰 긍지와 보람이며 혁명승리를 위한 무궁무진한 힘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이 땅우에는 청년강국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청년강국은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억만금의 재부가 있다고 하여 되는것도 아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훌륭한 청년대군을 키우고 존엄높은 청년강국을 일떠세운다. 이것은 세계사회주의운동사와 우리 조국의 현실이 가르쳐주는 철리이다.

수령의 위대한 령도풍모는 온 사회에 청춘의 패기와 열정이 차넘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평생 백두산청년장군의 왕성한 정력으로 우리 조국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는 청춘의 활력으로 힘있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시대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청년강국의 기상과 위용

을 높이 떨쳐가는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더없는 행운이며 영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강국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당이 새롭게 내놓은 시대어입니다. 우리 나라는 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입니다.》

청년강국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정치의 빛나는 결실로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온 사회에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기풍이 차넘치는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새로운 시대어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쳐온 빛나는 력사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시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새 기원이 열리고 가장 옳바른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패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청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갈길몰라 헤매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진정한 전위조직에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청년들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철쇄를 마스는 마치가 되게 하시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혁명적인 교양에 의하여 수많은 새 세대 열혈청년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골간으로 자라나고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전위적역할을 수행하여왔다.

하기에 우리 청년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자욱을 새기며 청춘이라는 부름의 무게를 알게 되였고 값높은 삶을 빛내이며 청년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위용을 세계앞에 과시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우리 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청년전위의 대부대를 키우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더 활짝 꽃피워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을 청년동맹의 기본사명, 조선청년운동의 총적목표로 규정하시고 사회주의청년운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운동을 수령의 사

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운동으로 되게 하시였다.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 당의 영원한 동행자라는 최상최대의 믿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과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시였다.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으며 자신의 동상은 세우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청년들에 대한 기념탑을 잘 세워주시려 마음쓰신 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뿐아니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이 열린 뜻깊은 날을 청년절로 제정해주시여 주체적청년운동의 위대한 전통을 세대와 세대를 거쳐 끝없이 이어주신 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의 청년운동은 년대와 년대를 넘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수 있었다.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가 가지는 관건적의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국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의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체조선의 천년미래를 꽃피우신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고귀한 유산이다.

—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만년재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날과 달들을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열화같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수놓아가시는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온 나라에 청년중시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청년들을 키우는 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진 오늘 우리 당은 청년들을 고상한 사상정신을 지닌 혁명인재로 키우는데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종국적승리가 눈앞에 다가올수록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도수는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이다.

당의 령도밑에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이 심화되고 백두의 칼바람맛을 아는 열혈의 청년전위들의 대부대가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온 나라에 울려퍼지는 혁명적인 노래포성과 거세찬 체육열풍은 청년들에게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 혁명적랑만과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드세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의 발현이다.

청년들을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는

당의 위대한 손길아래서 우리 청년들은 주체혁명의 계승자들로, 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자랑떨칠것이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키우는 혁명대학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뼈가 굵어지고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조국애, 투철한 반제계급의식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체질화한 청년들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국건설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을 열혈의 혁명투사로 키우고 인민군대에서 높이 발휘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사회의 모든 청년들이 적극 따라배우도록 한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시대 청년들의 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온 나라 각계층 청년들의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에서는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도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정신으로 벌려나가고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인민군군인들의 일당백돌격속도로 단숨에 해제끼며 노래를 불러도 혁명적이며 고상한 노래를 즐겨 부르고 우리 시대 청년의 멋이 나게 생활하고있는것이 우리 청년들이다. 현실은 청년문제해결의 시대적귀감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력사는 청년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로 수놓아지고있다.

당의 사랑과 믿음은 청년강국건설의 생명선이며 청년들의 값높은 삶의 자양분이다.

청년들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청년들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소년단원들과 청년들을 위한 성대한 경축행사들을 마련해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최전연초소도, 외진 섬방어대도, 북방의 험한 발전소건설장도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잘못 살아온 과거와 결별하고 석탄전선에 탄원한 돌격대원들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우리 당은 천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격려해주시고 부모형제에게도 감추어온 마음속진정을 아뢰는 소박한 편지에 믿음어린 친필도 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버이사랑은 만사람을 격동시키고있다. 정세가 극도로 첨예하고 아직은 모든것이 어려운 시기에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후대들을 위한 희한한 창조물들을 먼저 일떠세우도록 한것은 어머니 우리 당만이 꽃피울수 있는 미래사랑의 숭고한 화폭이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는 고결한 의리와 보답이 따르기마련이다.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근위대, 사회주의수호의 제일결사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위훈떨치고있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기개와 슬기는 키워준 은혜로운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려는 높은 자각과 불같은 충성의 분출이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에서 청년들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순결하게 시작되고 꽃펴나고있다.

청년들을 굳게 믿고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청년들이 강해야 조국이 강해지고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진것만큼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래일이 앞당겨

진다.

우리 조선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답게 혁명의 홰불봉을 높이 들고 주체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우리 조국을 영원히 위대한 청년강국으로 빛내여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2015년 2월 25일]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된데 대한 경탄의 목소리들이 련속 울려나왔다.

남조선의 《자주민보》 2014년 10월 31일부는 《최근 북의 언론보도를 보면 세계최상급의 건물들을 단 4개월만에 완공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있다. … 북의 새 건물, 새 시설건설열풍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라고 보도하였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성과학자주택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살고있는 조선의 과학자들이 정말 부럽다.》, 《**김정은**위원장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라고 격찬하였다.

주체 103(2014)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음으로써 인민들의 아름다운 리상이 실현되여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준 뜻깊은 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8일공장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움으로써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

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군대에서 조선속도창도의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본보기를 꾸리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본보기를 창조할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 103(2014)년 1 월 6 일 인민군대의 어느한 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현지에서 돌아보시였다.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 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였다. 또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 년 365 일 하루도 번지지 말고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으며 수산사업소를 태양절전으로 건설하여 올해 가을부터는 물고기공급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조직하는 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으로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건설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고 수산사업소의 이름을 1 월 8 일수산사업소로 명명하는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으며 설계와 시공단위, 자재와 설비보장, 어

로공모집, 어선과 어구보장대책 등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주체 103(2014)년 2월 1일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놀라운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3(2014)년 4월 조업을 앞둔 1월 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날바다를 헤가르며 뻗어간 수백 m의 방파제는 마치 비행장활주로 같다고, 수산물랭동과 절임에 필요한 시설들이 손색없이 건설되였다고, 특히 은하과학자거리처럼 멋있게 건설된 어로공주택지구는 어촌단풍마을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는 볼수록 희한한 로동당시대의 걸작, 조선동해포구에 솟아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풍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건설을 발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 8일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이 될수 있게 건설한것만큼 군대와 사회의 수산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산기지를 일떠세우거나 이미 있던 수산기지를 개건할 때 이 사업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것을 훌륭히 완공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그 건설속도를 조선속도라고 명명해주심으로써 조선속도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그를 일반화하여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투쟁방식이 마련되게 되였다.

ㅡ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민군대에 중요대상건설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도록 이끌어주시여 인민군대가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하신것이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밑에 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인민군대를 새로운 건설속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등 중요대상건설들을 맡겨주시면서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하도록 날자를 찍어주시였다.

사실 이 모든 대상건설들은 그 규모와 시간에 있어서 지난 시기 같으면 몇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과제였다.

하지만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새로운 건설속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중요대상들을 건설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불이 번쩍나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하였

다.

인민군군인들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안아온 자랑찬 창조물로 건설하였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3(2014)년 정초 국가과학원을 찾으시고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하도록 과업을 주신 대상건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부지로부터 설계, 건설력량편성, 건설자재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인민군군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가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로부터 건설장들을 찾으실 때마다 인민군군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 103(2014)년 6 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바라보시며 공사장전역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놀라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또한 펄펄 휘날리는 붉은 기발들과 곳곳에 세워진 호소성이 높은 직관물들, 힘있는 방송선전으로 들썩이는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3(2014)년 8 월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10 월 10 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군인건설자들의 비등된 열의에 맞게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최대로 발동시켜 새로운 건설속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단 7 개월만에,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은 4 개월 남짓한 기간에 완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3(2014)년 10 월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희한한 풍경이라고,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또 하나의 리상적인 주택지구가 건설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또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휴양소가 한폭의 그림같다고,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오른 절경이라고, 모든 조건과 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갖춘 휴양소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서로 떨어져있는 건축물들을 하나로 련결시킨 외랑이 볼수록 특색있다고,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이 잘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자주민보》도 《특히 외랑으로 모든 건물을 하나로 련결》시킨것이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형태의 건물이라고 하면서 《한폭의 그림과도 같았다.》라고 보도하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떠있는 돛배마냥 쌍기둥을 이루며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도 인민군군인들이 짧은 기간에 독

특한 기념비적창조물로 건설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줄 살림집건설을 발기하시고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몸소 터전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편성해주시였다. 그리고 설계와 시공, 자재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건설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며 나라의 건축술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3(2014)년 10 월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면서 2 개 호동의 46 층짜리 초고층살림집은 대동강에 떠있는 돛배같다고, 외벽에 열선반사판유리까지 씌우니 정말 멋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건축물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주체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대걸작품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축물로 훌륭히 건설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3(2014)년 2 월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면서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이라고 하시며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일떠세워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요람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몸소 설계도 지도해주시고 자재보장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부대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밝혀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건설에 착수한 인민군부대들은 단숨에의 공격정신,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4 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아이들의 요람, 세상에 둘도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3(2014)년 10 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볼수록 희한하고 황홀하다고, 우리 시대의 걸작품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처럼 훌륭한 보금자리는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새로 일떠섬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과시되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3(2014)년 4 월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면서도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 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 년 발전한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3(2014)년 4 월 완공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바라보시면서도 정말 멋있다고, 먼지만 날리던 곳이 천지개벽되였다고,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인민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이 공장 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몇개의 대상건설과 맞먹는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도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여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상징,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건하는데서도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0월8일공장을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갈마식료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물고기가공기지의 본보기, 표준으로 단 몇개월사이에 훌륭히 일떠세웠다.

이처럼 인민군대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육아원, 애육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5월1일경기장, 10월8일공장 등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였다.

—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새로운 건설속도,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된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사회의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사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

우는것은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군인들처럼 결사관철의 정신과 단숨에의 정신, 깐진 일솜씨를 가지고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로부터 새로운 건설속도,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된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사회의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등 수많은 대상건설에 참가하여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결사관철의 정신과 단숨에의 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불이 번쩍 나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가 제기일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결사관철하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은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시대를 주름잡는 오늘의 천리마기수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당의 결심이라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한 부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군인건설자들의 일본새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이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깐진 일솜씨에 대한 높은 평가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이러한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사회의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주체 103(2014)년 5월 말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부대는 우리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부대를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라고 하는것은 군부대가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세운 건축물마다에 자기 손으로 조국의 재부를 늘인다는 자각, 후대들에게 손색이 없는 건축물들을 넘겨주려는 군인건설자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어려있을뿐아니라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집대성되여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군부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모든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군부대의 건설장을 돌아보면 군인건설자들의 마음을 읽을수 있으며 그들처럼 일할 결심을 굳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주체 103(2014)년 5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이 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일본새를 모든 건설부문에서 따라배워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건설속도,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된 군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단숨에의 정신, 깐진 일솜씨를 사회의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과 황해남도물길공사 등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됨으로써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가 열리게 되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주체적건축미학사상에 관한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단숨에의 정신을 지니시고 탁월한 령도력으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짧은 기간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주체 104(2015)년 2 월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는 《우리 당의 혁명방식, 투쟁기풍, 창조본때로 새로운 시대정신,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자!, 단숨에!,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라고 지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이땅우에 인민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담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황홀한 현실로 끊임없이 펼쳐놓을것이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

[2016-05-2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해 2016 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낀 주체조선에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되였다.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영웅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맥동치게 하는 이 위대한 시대정신은 우리 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고 그들모두를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청년중시사상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만들수 없고 가질수도 없는 수소탄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사상적무기를 받아안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오늘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떠받들어올릴 위대한 **김정은**시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래일을 그려보며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에 바쳐오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1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한다.

창조와 변혁, 투쟁과 위훈으로 들끓는 격동적인 시대에 위대한 시대정신이 창조된다는것은 지나온 조선혁명의 장구한 력사가 뚜렷이 실증해준 력사의 진리이다.

— 백승을 떨치며 줄기차게 전진해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시대정신의 위력으로 전진해온 로정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력사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인 시대정신을 련이어 창조하여왔으며 그것을 당과 인민의 넋으로,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소중히 간직하고 혁명의 준엄한 폭풍을 헤쳐왔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간고한 항일혈전의 나날에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창조되였고 해방된 이땅에 신생조선을 탄생시키는 벅찬 민주건설의 시대에는 우리 인민을 새조국건설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드높은 건국정신이 창조되였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 불굴의 영웅적투쟁정신인 조국수호정신과 군자리정신이 창조되였고 적들이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던 이땅에 천리마조선을 일떠세우던 나날에는 천리마시대정신이 창조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숨막히는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에 전례없는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였던 지난 20세기 90년대 후반기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마련하였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은 영웅적투쟁으로 전진하는 시대마다에는 그 시대

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시대정신이 창조되며 위대한 시대정신이 온 사회를 풍미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 백승을 떨치며 줄기차게 전진해온 조선혁명은 오늘 종국적승리를 위한 벅찬 투쟁의 시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벅찬 투쟁의 시대, 주체혁명의 새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벅찬 투쟁의 시대, 주체혁명의 새시대이다. 어버이장군님의 념원인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희망찬 시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위대한 **김정은**시대이다.

이 격동의 시대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1 년을 10 년 맞잡이로 주름잡는 조선속도로 우리 조국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시키는 경이적인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

5 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곳곳에는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지고 내 조국의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는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비롯한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오늘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은 어머니당에서 품들여 마련해준 육아원과 애육원들, 높이 솟은 창전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은하과학

자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양로원을 비롯한 삶의 보금자리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고있으며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와 릉라인민유원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과학기술전당에서 최상의 문명을 누리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 날로 변모되는 내 조국의 벅찬 모습을 한눈에 바라보는 꿈아닌 현실이 펼쳐졌으며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멋쟁이 지하전동차가 지하평양을 더 화려하게 장식하며 질주하고있다.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주체조선의 자위적국방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라 충성의 70 일전투기간에만 하여도 전국적인 전투계획이 공업생산액적으로 144%로 넘쳐 수행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공업생산이 1.6 배로 장성하는 눈부신 혁신이 일어났다.

이 모든 자랑찬 현실은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기상으로 세기를 주름잡는 위대한 시대가 주체조선에 도래하였음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이 위대한 시대는 마침내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였다.

2

위대한 시대정신은 절세의 위인에 의하여 창조된다.

지나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새로운 시대정신은 시대의 숨결을 한몸에 체현한 절세위인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창조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오늘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적극 내세워주시였다.

그 어느 시대정신을 막론하고 창조의 주인공이 있기마련이지만 어느 사회적집단을 시대정신창조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령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지나온 조선혁명의 전행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을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내세우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에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속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인 혁명군인정신이 창조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선정하신것은 그이의 마음속에 청년들에 대한 믿음이 굳게 자리잡았기때문이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전렬에 내세우고 그들의 위훈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내여주

시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4(2015)년 4 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당시)을 찾으시여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1 호, 2 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해주시면서 청년들을 시대의 맨 앞자리에 내세워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며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날의 현지지도는 청년들을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가 뚜렷이 과시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과 완공된 발전소를 거듭 찾으시면서 청년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더 높은 투쟁목표를 제시해주시여 그들모두가 조선속도창조로 들끓는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나도록 적극 고무해주시였다.

주체 104(2015)년 4 월에 이어 9 월에 또다시 멀고 험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이룩한 투쟁성과를 영웅청년신화로 높이 평가하시고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라고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이해 10 월 청년들이 1 호, 2 호발전소를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들에게 다음해 청년절까지 백두산영

웅청년 3 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영예로운 임무를 또다시 맡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듭되는 믿음과 사랑은 청년들을 영웅적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위력한 추동력이였다.

한두해도 아닌 오랜 나날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스스로 《백두청춘대학》이라는 과정안을 만들고 매일, 매 시각 량심의 점수를 매겨온 청년돌격대원들은 멀고 험한 북방의 건설장까지 찾아오시여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려 백두대지에 빛나는 위훈의 자욱을 아로새기였다. 그들은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얼어붙으면 썰매전, 발구전으로 수송로를 열어나갔고 서두수의 차디찬 물속에 뛰여들어 온몸이 《얼음기둥》이 되여 레루를 떠받들며 공사를 진척시켰다. 그 어떤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는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10 년간 진행해온것보다 더 방대한 건설과제를 불과 넉달동안에 완수하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 우리의 미더운 백두청춘들이 불과 120 여일동안에 10 년을 주름잡으며 1 호발전소 언제를 완공할수 있은것은 그들모두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과감히 맞받아 뚫고나간데 있었다.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은 마침내 우리 시대의 청년돌격정신으로 더욱 승화되였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인 대자연개조전투장에

서 창조된 우리 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은 당의 호소를 심장에 쪼아박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곧바로의 정신이며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이며 형언할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동지적우애와 집단의 위력으로 곤난을 뚫고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다.

백두산영웅청년 1 호와 2 호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인 우리 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을 창조한 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를 건설하던 나날에도《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자신들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갔다.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활활 불태우며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에 총궐기한 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강설이 들이닥치는 북부고산지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언제가배수로와 조압수조, 취수구콩크리트타입과 물길굴피복공사에서 청년돌격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감으로써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를 완공하고 당이 준 명령을 넉달이나 앞당겨 관철하는 영웅청년신화를 또다시 창조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우리 청년들의 무한대한 힘과 슬기가 총폭발되고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인 우리 시대의 청년돌격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된것은 몇십, 몇백만 kW 의 전기를 얻는것에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성과이며 승리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남김없이 발휘된 청년들의 투쟁정신을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명명해주시고 오늘

의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주체 104(2015)년 10 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청년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우리 시대의 청년돌격정신으로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청년교양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고수하기 위한 대사상전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주체105(2016)년 4월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전력생산기지이면서도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우리 청년들이 어떤 정신을 안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교양거점이라고 하시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였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였다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 뿌리를 두고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최고의 높이에서 구현한 곧바로의 정신, 드세찬 공격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일관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절세의 위인에 의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정녕 이것은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낳은 오늘의 새로운 시대정신이며 절세위인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 세상에 둘도없는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리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맞으며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된것은 탁월한 청년중시정치로 청년들을 시대의 맨 앞자리에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불멸의 업적이다.

새로운 시대정신인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됨으로써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수소탄보다 더 강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받아안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주체조선의 무궁할 래일을 확신성있게 담보해주시는 위대한 시대정신의 창조자, 절세의 위인이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은 우리 겨레에게 수소탄보다 더 강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기고 절세위인이 가리키시는 조국통일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

[2015-08-12]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태여난 주체조선의 체육은 오늘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체육신화들을 창조하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다.

위대한 내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더욱 힘차게 떨치며 체육에서도 강국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열풍이 온 나라에 거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뿐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단합을 이룩하고 건전한 분위기를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 강의한 정신력도, 최첨단요새를 점령해나가는 비상한 지혜도, 이르는 곳마다에 생신한 활력이 차넘치고 그 어디서나 남들이 보란듯이 들썩하게 새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기풍도 다 건전하고 왕성한 체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고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은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천만군민이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강국으로뿐아니라 체육강국으로도 빛내이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제 7 차 전국체육인대회를 몸소 조직해주시고 체육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온 사회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라의 체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일찍부터 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시고 그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기 위하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안아오시였다.

—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체육강국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력적지침을 마련해주신것이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육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사업발전의 옳바른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체육발전의 요구와 세계체육발전추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울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체육강국은 전체 인민이 건장한 체력과 강의한 정신력을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준비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며 고상하고 아름다운 체육문화정서생활기풍으로 온 사회에 생기발랄하고 집단의 단결된 분위기가 넘쳐나는 나라, 나라의 전반적체육종목들의 수준이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큰 규모의 국제경기들에서 끊임없이 공화국기발을 휘날릴수 있는 높이에 이른 체육발전의 선진국이다.

현시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세계를 내다보시는 비범한 안목, 체육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강국건설에서 시종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우리 식의 훈련방법에 기초하여 모든 체육종목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체육의 상징종목인 축구발전에 힘을 집중하여 최단기간에 우리 나라 축구를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며 파악이 있고 승산이 있는 종목부터 먼저 추켜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또한 사격이나 활쏘기와 같은 국방체육종목들, 체조와 물에 뛰여들기, 구기종목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탁구도 승산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국제경기들에서 성과를 거둔 전통이 있는 종목들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승산종목에 힘을 집중하고 투자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우리 체육의 구체적인 발전실태와 세계체육발전추세에 맞게 이미 여러 경기를 통하여 파악이 있고 승산이 있는 종목들의 발전을 앞세우고 여기에 다른 종목

들의 발전을 따라세워 나라의 체육전반을 빠른 기간안에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가르치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또한 체육사업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변함없이 전진시켜나가시려는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깃들어있으며 하루빨리 나라의 체육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가 담겨져있다.

이번에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m 물에 뛰여들기 경기에서 제1의 영예를 쟁취한 김국향선수 , 2015년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 녀자축구선수들, 2014 년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맞다든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제 1 등의 영예를 지닌 양경일선수, 제 30 차 올림픽경기대회 력기경기에서 람홍색공화국기발을 세계에 휘날린 력기선수들을 비롯하여 체육부문에서 이룩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체육강국건설사상과 방침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현실적조건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체육강국의 앞길을 환히 밝힌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을 체육강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고무적기치로, 지침으로 되고있다.

—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체육인들을 체육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기수로 내세워주신것이다.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백마디, 천마디 말로도 대신할수 없는 커다란 호소력과 감화력을 가지고있는것이 체육경기이다.

평화시기에 승패를 겨루고 우승한 팀의 국기를 띄우며 국가를 울려주어 해당 나라의 위력을 시위하는것이 바로 체육이다. 그러므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과 지위를 세계만방에 떨쳐야 할 임무가 체육인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한 소식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줄뿐아니라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제 52 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에서 1 등의 영예를 지닌 김혁봉, 김정선수와 제 14 차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우승한 김금옥선수, 2013 년과 2015 년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에서 녀자축구선수들이 영예의 1 위를 쟁취한 커다란 성과는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희망,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우리 체육인들이 이룩한 이러한 성과들은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펼치시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하루빨리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지위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체육인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체육인들이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경기장에 나오시여 선수들의 경기를 여러차례나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도 가르쳐주시고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에게는 기념사진도 남겨

주시며 금메달로 주체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불타는 결의를 담은 체육선수들과 감독들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최상의 믿음이 담긴 친필도 보내주시였다.

국제경기들에 나가 우승을 하여 공화국기를 날리는 체육인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들이고 영웅들이며 멋쟁이들이라는 값높은 평가속에, 국제경기우승자들의 가슴마다에 빛나는 영웅메달과 누구나 부러워하는 고급살림집을 안겨주신것을 비롯하여 거듭거듭 베풀어주시는 친어버이의 사랑과 은정속에 우리 체육인들을 체육강국건설의 기수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

체육인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남다른 기대와 믿음은 공화국창건 65돐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시위에서 체육인대렬이 특색있게 나아가도록 하신데서도 뚜렷이 표현되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체육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몸소 **김일성**경기장에 나오시여 제12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4.25팀과 선봉팀의 남자축구 결승경기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경기를 훌륭하게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경기가 끝난 후 량팀선수들과 감독, 심판원들을 모두 부르시여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경기를 아주 잘하였다고 과분한 치하를 해주시였으며 체육강국건설에서 앞장서리라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어 우리 체육인들은 오늘도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체육강국건설의 기수로 맨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 온 사회에 체육열풍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온 나라에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것이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전문체육과 함께 군중체육을 발전시켜야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전사회적으로 건전하고 활기에 넘친 약동하는 분위기가 차넘치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사는 곳 그 어디에서나 체육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주체100(2011)년 12월 초 빙상휘거모범출연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체육을 대중화하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이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게 하며 온 사회에 희열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체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령도의 그 바쁘신속에서도 주체 101(2012)년 10월 29일에 진행된 제12차 인민체육대회에 몸소 나오시여 평양시민들과 함께 체육단부문 4.25팀과 선봉팀사이의 남자축구결승경기를 관람하시면서 이번 체육경기가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이 자랑찬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뜻깊은 첫해에 제12차 인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체육은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체육선수후비들을 찾아내여 전망성있게 키울데 대하여서와 체육을 대중화하고 군중체육을 발전시킬데 대한 강력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조직되게 되였으며 태양절, 광명성절, 체육절, 체육의 날과 8, 9 월 인민체력검정운동의 날을 비롯한 여러계기를 통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어번지게 되였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들에서 대중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명절날이나 일요일 같은 때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어디가나 체육으로 흥성거리게 되였다.

한편 TV 와 방송, 신문과 잡지, 체육소개판에 세계 각지와 국내에서 진행되는 체육경기소식들과 국제, 국내경기들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소개선전하는 사업과 근로자들속에서 체육상식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널리 진행됨에 따라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수 있는 체육시설들을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깊은 마음을 쓰시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체육시설들을 잘 꾸려놓아야 누구나 일상적으로 체육을 할수 있으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체육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관과 경기장들을 개건보수하고 나라의 곳곳에 체육공원과 체육시설들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리여있고 나라의 체육발전뿐아니라 인민들의 체력단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체육관과 경기장들을 일신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평양체육관과 양각도축구경기장, 5월 1일경기장, 청춘거리 체육촌들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체육시설들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개건보수되고 릉라인민체육공원을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 각종 체육공원들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육열기를 북돋아주는데 더욱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전체 인민이 건장한 체력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가 희열과 랑만으로 차넘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이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섰으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배구장, 축구장, 수영관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들이 건설되여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가 적극 실현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오늘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더 세차게 일어나고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지금 세계의 통신과 방송들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 국제경기들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거둔 성과를 앞을 다투어 전하고있다.

《조선 체육강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 《**김정은**령도자 평양시민들과 축구경기 관람》, 《세계로 내닫는 조선스포츠》, 《조선에서의 체육열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육인들을 우대하고있다.》…

세계의 통신과 방송들이 한결같이 전하듯이 체육열풍은 오늘의 조선을 특

징짓는 생동한 표어로 되고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되였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나라는 멀지 않아 체육강국의 지위에 우뚝 솟아오를것이며 우리 인민은 희열과 랑만에 넘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울데 대한 탁월한 사상리론

[2015-11-12]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녀성들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나가자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한다. 수레가 한쪽바퀴만 돌아가서는 제대로 굴러갈수 없듯이 남자들의 역할만으로는 사회가 빨리 발전할수 없다.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우리 사회의 발전을 더욱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앞당길수 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울데 대한 사상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무엇

보다먼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녀성들이 차지하는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늘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녀성들의 사회적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우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녀성중시사상과 더불어 조선녀성운동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페지를 장식할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라는것은 우리 녀성들이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남자들과 평등한 위치에서 꼭같은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사회에서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자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여야 하는데 하나는 이 문제해결의 사회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녀성들을 혁명화하여 녀성문제해결의 직접적담당자, 주체를 준비시키는 문제이다.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문제는 반드시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과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은 녀성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온갖 장애와 부담이 제거된 때라야 행사되게 되며 공고화된다.

녀성들을 착취와 압박, 인신적예속과 불평등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남자들과 꼭같은 사회적지위를 가지고 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사업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철저히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녀성들도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녀성들이 사회생활을 마음놓고 할수 있도록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사업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의 손에 장악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현실로 될수 있다.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게 하려면 그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주체적요인을 강화하여야 한다. 녀성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한쪽수레바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것이 녀성혁명화의 근본목적이다.

국가가 많은 부담을 걸머지면서도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을 장려하는것은 단순히 로력문제를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녀성들을 혁명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떳떳한 역군, 한쪽수레바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것이다.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는데서 경제를 발전시켜 그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것은 녀성들자신을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이 장성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다. 녀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역할을 떠나서 사회주의의 성과적건설을 바랄수 없다.

녀성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사회생활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은 더욱더 공고화되고 높아진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울데 대한 사상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우리 녀성들앞에 나서는 임무를 과학적으로 밝히신것이다.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녀성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로서의 우리 녀성들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시대의 꽃으로서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에게 있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령결사옹위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이룩될수 있으며 따라서 수령결사옹위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선차적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오늘 우리 녀성들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녀성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견결한 녀성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원수님의 주체적녀성운동사상과 리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그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녀성들은 자신들은 물론 아들딸들과 후대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전사들로 키워야 한다.

당의 운명이자 사회주의의 운명이며 녀성들의 운명이다. 녀성들은 오직 당의 품속에서만 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으며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려나갈수 있다.

모든 녀성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성을 다하여 영원히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오직 위대한 령도자를 신념의 기둥으로 믿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여기에 우리 녀성들의 참다운 삶의 길, 투쟁의 길이 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원호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녀성들앞에 나선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이다.

조국보위와 원군은 우리 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며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은 없다.

우리 녀성들은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는것을 녀성들의 애국적본분으로, 더없는 영예로 여기며 총대가정, 혁명적군인가정대렬을

늘여나가야 한다. 사회의 녀성들도 군사를 성실히 배워 일단 유사시에는 인민군군인들과 한전호에서 싸우며 조국의 후방을 녀성들의 힘으로 지켜낼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위훈을 세워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녀성들에게 있어서 당의 부름을 받들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참가하여 위훈을 떨치는것보다 더 긍지높고 보람찬 일은 없다.

모든 녀성들은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주체조선의 녀성들이 어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가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녀성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감으로써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 근면성과 알뜰한 일솜씨를 지닌 조선녀성의 훌륭한 기질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인 오늘의 현실은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녀성들은 당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꽃피운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녀성과학자들은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한다.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목표를 세우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한 사업에서 녀성들이 노는 역할은 참으로

크다. 사회의 세포인 가정이 건전하고 화목해야 온 사회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게 된다.

우리 녀성들은 가정이 화목해야 만가지 일이 잘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가정들을 화목하고 건전하며 혁명적인 사회주의생활문화모범가정으로 꾸려나감으로써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다해나가야 한다.

녀성들은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첫째가는 교양자이다. 자녀들의 품행과 성격은 누구보다도 어머니들이 어떤 품성을 지니고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며 교양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녀성들은 자녀들의 단순한 보육자가 아니라 조국의 아들딸,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교양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고상한 사상정신적, 문화도덕적품성과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녀성들은 가정의 주부이다. 녀성들이 가정의 주부로서의 구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한가정뿐아니라 전반적나라살림살이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녀성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림집을 문화적으로 꾸리고 거두는것을 비롯하여 가정살림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원숙하게 풀어나가며 알뜰하고 깐진 살림살이기풍을 세워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가정들이 튼튼해야 사회가 건전하게 강화발전될수 있다. 가정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녀성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 녀성들이 가정생활에서 지닌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모든 가정을 단란하고 건전하며 혁명적인 가정으로 꾸린다면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높이 떨치게 된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울데 대한 사상리론은 녀성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며 우리 녀성들이 영원히 들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녀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길에서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는 시대와 혁명의 꽃,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완성된 리론

[2016-09-08]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환희속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인류의 국가건설사에는 망국과 복국의 피눈물로 엮은 가지가지의 기록들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하지만 우리 조국처럼 식민지약소국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애국헌신에 떠받들려 자주,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고있는 불패의 국가, 인민의 공화국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60여년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준엄한 폭풍을 헤치며 조국수호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백전백승하며 세기적인 전변을 이룩하여온 성스러운 력사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구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이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력

사적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사상리론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하고 공고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의 실체를 탄생시켰다.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을 확립하는것은 시대의 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게 되였다.

이 력사적과제에 옳바른 해답을 준것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새로운 원리적기초, 방법론적기초우에서 사회주의국가의 본질과 특징, 국가건설의 근본원리와 원칙을 새롭게 천명하였으며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에 의하여 선행한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의 력사적제한성이 극복되고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완성된 국가건설리론의 높은 경지가 개척되게 되였다.

—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이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완성된 리론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사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건설리론으로 정립체계화되였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국

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보고 대하는 독창적인 리론이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가장 참답게 이바지하는 과학적인 리론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고있다.

국가건설리론은 무엇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는가에 따라 그 본질과 성격, 내용이 달라진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의 력사적공적을 시인하면서 사회주의국가정치의 주인이며 결정적요인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명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인민대중을 자주적주체로 하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국가와 인민대중과의 관계를 사회주의국가건설리론전개의 근본문제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의 착취계급의 국가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적무기이며 그의 력사적사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또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는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원리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이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이와 함께 인민대중이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는 참다운 사회주의정권형태인 인민정권에 관한 사

상을 새롭게 제기하고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인 정치방식과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기능과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독창적인 국가건설리론인것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사회주의국가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정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로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넓은 길을 열어준 위대한 사상리론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이것은 백수십년을 헤아리는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발전사에서 물질경제관계중심의 국가건설리론으로부터 인민대중중심의 국가건설리론에로의 방향전환의 새 력사를 개척한 세계정치사에서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였다.

—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이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완성된 리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수령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리론을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운동이 지난날의 사회력사적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것이 력사상 처음으로 탁월한 수령을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 내세운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운동이라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기본은 수령문제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도 이 철리에는 변함이 없다.

원래 사회주의국가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전사회적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는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수령의 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가장 과학적인 지도사상으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수령의 령도는 사회주의국가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수령을 떠난 사회주의국가의 창건과 발전, 그 력사적사명의 완수에 대하여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

지난날 지구상에서 남먼저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고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던 쏘련에서 자본주의복귀라는 비극적현상이 초래되게 된 근본원인도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보장되지 못한데 있었다.

사회주의국가는 오직 수령의 사상과 령도밑에서만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갈수 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나가는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종국적완성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로 발전해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아무리 력사가 오래고 막강한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어도 원쑤들의 온갖 훼방과 공격을 분쇄하지 못하고 무너지고만다는것을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력사가 현실로 똑똑히 증명해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수령중심론의 원리를 구현하여 사회주의국가건설리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사회주의국가는 당의 령도밑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

고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생명선이라면 그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수령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을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삼으며 수령의 로선과 정책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기구체계,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수령께 충실한 일군들을 국가기관 일군들로 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국가를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수령의 정치조직으로 만들고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영원히 옹호고수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준다.

이것은 수령중심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국가의 혁명적본질과 근본성격을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한것으로서 선행한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발견인 동시에 사회주의국가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가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경이적인 사변으로 된다.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국가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 건설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최상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해명한 리론이라는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이 선행한 국가건설리론들과 구별되는 근본특징의 하나가 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의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리론으로 영원한 빛을 뿌리고있다.

—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이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완성된 리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전면적으로 담고있으며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는 리론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건설리론의 완성정도는 사상리론적내용의 풍부성과 전일성에서도 표현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과 전일적인 체계를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의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으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국가건설리론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폭넓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는 백과전서적인 국가건설리론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자주시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국가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다시말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에는 사회주의국가의 본질과 사명, 지도사상과 활동방식,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원리와 원칙 등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원리적문제들뿐아니라 사회주의국가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실천적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해답이 주어졌으며 주권쟁취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시기의 국가건설문제에 이르기까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이 담아야 할 모든 문제들이 완전무결하게 집대성되여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담고있을뿐아니라 그 내용전반을 하나의 세계관적원리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의 모든 내용과 체계는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들로 관통되여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그 과학성과 심오성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을 일관하게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새롭고 독창적인 원리를 모든 내용들에 전면적으로 관철시키였다. 또한 총대강화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틀어쥐고 전반적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로운 진로를 명시하여주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에 의하여 각이한 력사발전단계에서 인민들이 가장 옳바른 원리와 원칙, 방법에 의거하여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자기식의 국가를 세우고 자기 힘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완성된 국가건설리론이 탄생하게 되였다. 사상리론적내용의 풍부성과 전반체계의 전일성, 완벽성에 있어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은 리론,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국가건설리론으로 세상사람들의 한결같은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해결의 주인으로, 결정적요인으로 내세우고 수령중심의 독창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자주시대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정연하고 완벽한 해답을 주는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이야말로 로동계급과 인류의 국가건설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영원불멸할 리론으로 빛나고있다.

국가건설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의 정립이야말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와 인류의 자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조국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나가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다

[2015-10-08]

오늘 우리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이 날을 맞는 우리의 천만군민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의 위대한 개척자, 령도자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영상을 숭엄히 우러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입니다.》

조선로동당 창건, 이것은 자주시대 새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주체혁명의 줄기찬 전진과 반제대결전에서의 련전련승,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과 새로운 주체 100 년대진군의 힘찬 활력은 우리 당창건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오늘과 같이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이 온 누리에 힘있게 떨쳐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강하고 위대하기때문이다.

세상에는 조선로동당처럼 세기를 이어 자기의 창건자, 령도자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혁명적당은 없다. 오늘 우리 당이 지닌 높은 존엄과 권위는 곧 수령의 당으로서의 존엄이며 권위이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되여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가 있고 영원한 존엄과 영광이 있다.

—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오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는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당건설령도사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무으신 《타도제국주의동맹》(《ㅌ. ㄷ》)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ㅌ. ㄷ》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강력한 정치적참모부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자주적운명개척의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당의 최고수위에서 당건설과 당활동을 현명하게 이끄시며 혁명적당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은 주체적당건설의 고귀한 지침이였고 수령님의 령도는 우리 당이 사소한 로선상착오나 우여곡절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올수 있게 한 원천이였으며 수령님의 덕망은 전당을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묶어세운 생명수였다.

력사에는 당을 조직하고 이끈 정치가들이 많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10대에 혁명적당건설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고 수십성상 당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탁월한 수령은 없다.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필승불패의 당을 건설하시여 우리 조국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지금으로부터 50 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신것이 바로 우리 당을 수령의 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였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움직이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쳐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전당 **김일성**주의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은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적기능과 전투적위력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악의 시련이 겹쌓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시고 우리 당을 주체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주체적당건설사에 길이 빛날 업적이다. 우리 당이 자주의 기치높이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온 성스러운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수령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강의한 의지, 불면불휴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

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의 긍지높은 모습이다.

—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위대한 향도의 당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를 대표하고 21세기를 향도하는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당창건의 첫 기슭에서부터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온 우리 당에 있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외에 다른 사상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작성의 출발적기초로, 근본지침으로 되고있다.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에 대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현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열렬한 신봉자, 견결한 옹호관철자로 삶을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지도사상은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

도사상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존엄떨칠것이다.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조직진행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을 이끄시며 혁명적당건설의 시대적본보기들을 다 마련해놓으시였다. 여기에는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 문제로부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문제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경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은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방식, 활동방식으로 되고있다. 당의 조직건설, 사상건설, 령도예술건설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놓으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에 토대하여 해나가고 있는것이 우리 당이다.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신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가 지배하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다.

전당이 사람과의 사업에 주력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도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중령도방법의 계승이며 우리 당이 추켜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도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의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의 만능의 보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신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100% 계승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은 확고부동하다.

— 오늘 조선로동당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모시여 수령의 당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빛을 뿌리고 이 땅우에 륭성번영의 새아침이 밝아오고있다.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정치실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이 더욱더 뚜렷이 부각되고 전투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 4 차 대표자회와 조선로동당 제 4 차 세포비서대회, 조선로동당 제 8 차 사상일군대회를 비롯한 력사적인 회합들을 마련하시여 우리 당 강화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전환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신것은 거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이 지금처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력사적진군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인가를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당은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하기에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 유훈과 념원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지금 이 땅우에서는 세기적변혁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조국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신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고있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철령아래에 사과바다가 펼쳐지는것과 같은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고결한 충성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의 유훈과 념원을 정히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는 절대적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

[2015 년 1 월 30 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는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불타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의 밀림에서 타오른 혁명정신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가며 빛을 뿌릴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여온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다.

조선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창조되고 장구한 혁명의 전로정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여온 정신, 우리 시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모든 사상정신적특질이 다 담겨진 정신이라는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비상한 견인력이 있고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있다.

이 위대한 혁명정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강의하고 혁명적인 인민으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세인을 경탄시키며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창조되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그 견인력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가며 빛을 뿌릴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이다.

— 그것은 우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우리 혁명을 영원히 백두산혈통으로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기때문이다.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투쟁해나갈 때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오던 나날에 우리 인민이 심장깊이 새긴 철리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백두밀림에서 강도 일제와 맞서 생눈을 씹어삼키면서도, 단두대우에 올라서서도 굴함없이 싸워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김일성**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전사로서의 혁명적의리를 끝까지 지켰으며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그들은 혹심한 추위와 식량난을 겪을 때도, 적들과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싸움을 벌릴 때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부터 먼저 생각하였으며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수령님을 옹위하였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방패가 되여 혁명

의 사령부를 보위한 혁명의 1 세들이야말로 우리 인민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이다. 이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이 피와 넋으로 간직되여있었기에 항일혁명선렬들은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수령결사옹위라는 세상에 없는 위대한 정신을 창조하여 력사의 기적을 안아올수 있었으며 수령결사옹위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전통으로, 백두산혈통으로 빛내일수 있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신념의 원천이였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불패의 일심단결이 3 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군사적기적도 안아왔고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도 펼쳐놓았다. 수령결사옹위정신만이 꽉 차넘치는 우리 혁명대오앞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그 어떤 책동도 물거품이 되였고 세계를 휩쓴 반사회주의광풍도 맥을 출수 없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그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백두의 칼바람을 순간순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오직 주체의 한길로 꿋꿋이 전진해왔으며 치렬한 반제대결전마다에서 련전련승만을 안아왔던것이다.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신념과 의지, 량심과 의리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다. 모든 사고와 실천을 수령결사옹위로부터 출발하고 당의 결정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나 결사관철하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이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원수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이와 같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산칼바람정신은 곧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수령결사옹위를 근본핵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우리 혁명을 영원히 백두산혈통으로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 그것은 또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우리 조국의 존엄과 강성번영의 기상을 세계에 높이 떨쳐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 나가는 공격정신이고 억천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며 제힘으로 이 땅, 이 하늘아래 부강조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겠다는 자주의 정신이다.

이 땅의 고귀한 전취물들과 귀중한 재부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마련한것이다. 우리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혁명의 모든 년대들을 세기적인 비약과 천지개벽으로 수놓아왔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은 어지러운 광풍을 과감히 헤치며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온 성스러운 행로였다.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도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으며 3 년간의 가렬처절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영웅조선, 영웅적인민의 기개를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였다. 전후에도 우리 인민은 강한 민족자주정신과 불굴의 투지로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

고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뿐아니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로, 기적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지난 세기 90 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계승이며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전 사회적으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타올랐으며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체질화한 시대의 혁명가, 정신력의 강자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지난 세기에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몰아온 부르죠아바람, 자유화바람에 의해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수많은 사람들속에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사상적동요가 일어났다. 제국주의자들의 《개혁》, 《개편》바람에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줴버리고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진 신념이 떨떨한자들도 나타났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이런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혁명의 개척기에 추켜든 자주,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승리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올수 있은것은 언제나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싸워왔기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백두의 칼바람은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말라는 혁명선렬들의 당부였고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웃으며 맞받아나가는 불굴의 정신

력을 낳는 원동력이였으며 백전백승의 명맥을 이어준 활력소였다.

백두산이 혁명의 성산으로 높이 솟아있고 백두의 칼바람이 멈춤없이 거세차게 휘몰아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이 새로운 주체 100 년대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는것이다.

오늘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진군길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건설의 최전성기가 대번영기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긍지높은 현실이 펼쳐진것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일어난 빛나는 결실이다.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의 살림집,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인민극장, 각지의 공원과 유원지들이 훌륭히 꾸려져 우리 인민들이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념원이 현실로 펼쳐진 자랑찬 모습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야말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만년재보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귀중함을 더욱더 심장깊이 절감하며 우리 조국을 영원히 백두의 기상과 넋이 높뛰고 쉬임없이 나래치는 강위력하고 번영하는 위대한 조국으로 빛내여나갈 굳센 의지를 지니고 백두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신념과 의지의 위력의 원천은 오늘도 래일도 백두의 혁명정신에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고 기상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패성의 상징이다. 천만군민이 백

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조국의 강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

이와 같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재보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기상을 안고 살며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걸어온 백두의 행군길을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끝까지 줄기차게 이어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청년강국의 본질과 특징

[2015-08-26]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청년문제가 긍지높이 해결된 나라는 없다.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사랑을 받고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자랑떨치는 우리의 청년들을 세계앞에 당당히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오늘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탄생하게 되였다.

청년강국, 이 위대한 부름은 **김정은**시대에 혁명발전에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또다시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음을 말해주고있다.

청년강국건설은 본질에 있어서 부강조국건설의 담당자, 미래의 주인공들을 키우는 투쟁이다. 군사강국, 경제강국건설도 청년강국건설과 다같이 밀고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그 존엄과 위용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는것이 강국건설에 관한 주체적인 견해이다. 한때 세계적인 강국으로 명성떨쳤던 나라들이 자기의 지위를 상실하고 력사책으로만 전해지고있는 교훈이 이것을 뚜렷이 반증해주고있다.

청년문제는 오늘 인류앞에 날이 갈수록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는 시대적과제이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약육강식, 부패타락한 생활풍조로 일관된 제국주의사상문화가 세계에 범람하는 속에 청년들의 사상정신적, 도덕육체적파멸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세상사람들이 환경위기, 식량 및 에네르기위기, 물위기와 같은 21 세기 인류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보다 더 심각한 난문제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건전한 새 세대가 준비되지 못하고있는것이라고 개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해결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고 명실공히 청년강국을 건설한것은 우리 나라밖에 없다.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과 함께 주체의 청년강국이야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가장 고귀한 성과이며 우리 조국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강국중의 강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강국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당이 새롭게 내놓은 시대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입니다.》

청년강국은 본질에 있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강력한 청년전위조직과 수백만의 청년대군을 가지고있으며 그의 선봉대적, 돌격대적역할에 의하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부강번영하는 나라, 다시말하여 수령결사옹위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진취적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온 세상에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청년강국이란 말은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온 사회에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기풍이 차넘치는 우리 나라에 고유한것로서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이 새롭게 내놓은 시대어이다.

그러면 청년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 우리 조국은 무엇보다도 정신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진 청년강국이다.

강국의 기준이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있지 않는것처럼 청년강국의 표징

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되여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이며 청년들의 사회적가치이자 정신도덕적높이이다. 력사와 현실은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견실하지 못한 청년들은 설사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사회의 우환거리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망쳐먹는 화근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고 고상한 미덕을 지닌 청년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이런 청년들의 대부대가 있는 나라만이 진정한 청년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청년들은 그 어느 나라 청년들도 따를수 없는 가장 우수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닌 청년들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상한 도덕의리심, 여기에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다. 우리 청년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도, 쏟아져내리는 산사태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위한 유명무명의 수령결사옹위투사들, 당의 호소를 받들어 나서자란 정든 도시를 떠나 외진 산골과 섬마을로 탄원하여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여나가는 미풍선구자들이 수없이 많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친자식이 되고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잃은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처녀어머니》가 되는 우리의 청춘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자기만을 알고 돈의 노예로 전락된 자본주의나라 청년들같으면 상상조차 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당과 자기 운명의 피줄을 잇고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을 청춘의 멋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만이 지닐수 있는 인격이고 미덕이다. 이런 아름다운 기풍이 우리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여기에 주체의 청년강국의 참모습이 있다.

력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악랄하고 집요한것이였다. 여기에서 적들의 주되는 과녁은 새 세대 청년들이였다. 현시기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벌리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부르죠아적사상문화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이 날로 강화되는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끄떡없이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고수하고 더욱 살려나가고있는것은 력사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세상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는 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압박과 경제적제재봉쇄책동이 걸음마다 파탄되고 공화국은 더욱더 승승장구해나가고있다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진군을 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 우리 조국은 다음으로 청년들의 선봉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에 의하여 일떠서고 끝없이 강성번영하는 청년강국이다.

새것을 지향하는 진취성과 정의와 진리에 대한 사랑,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용감성은 청춘의 대명사이다. 이런 훌륭한 특징과 자질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청년들은 사회적진보와 발전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혁명에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은 비할바없이 높다. 당의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새 사회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한 선봉대, 주력부대가 되여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여온것이 우리 청년들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의 력사에는 청년들의 영웅적위훈과 불멸의 공적이 별처럼 빛나고있다. 혁명적무장력의 주력을 이룬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1950 년대 전승의 축포를 올리는데서,

총포성없는 치렬한 반제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을 창조하는데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여왔다. 증산경쟁운동의 불길높이 새 조국건설에 앞장서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대건설시기 당의 부름따라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발지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간 청년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빈터와 페허우에서 사회주의강국으로 비약할수 있었다.

전세대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요람에서 행복을 누리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이자는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삶의 목표이며 지향이다. 우리 시대에 우주를 정복한 민족사적대경사와 최첨단돌파의 기적적인 성과들,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체육, 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 일어나고있는 놀라운 변혁들은 리상과 포부가 원대하고 창조적힘이 무궁무진한 우리 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청년강국, 이 부름에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특출한 공적을 이룩한 청년들을 온 세상에 떳떳이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응축되여있다.

오늘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 특히 청년인재들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이다. 우리 당이 전면적으로 다그치고있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투쟁은 청년들의 창조적능력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과학기술을 소유한 청년인재들이 수많이 배출됨에 따라 강국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다.

— 우리 조국은 다음으로 영원히 젊음으로 약동하는 청년강국이다.

청년시절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대교체가 부단히 이루어지는것이 청년대오의 특징이다. 력사의 한 시대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훌륭한 청년들의 후비가 억세게 자라나고 청춘의 패기와 열정이 온 사회에 차넘치는 나라가 진정한 청년강국이다.

우리 조국은 혁명적이고 건전한 청년들의 대가 세대와 세기가 바뀌여도 굳건히 이어지는 나라이다. 혁명의 1세,2세 청년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3세, 4세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로 되였고 오늘 새로운 주체100년대 진군길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심장속에 꿋꿋이 살아 높뛰고있다. 이것은 숭고한 미래사랑, 후대사랑이 꽃피여나는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태여난 첫날부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고 혁명적인 사상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우리 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키워 내세워주고있다. 소년단조직과 청년동맹조직생활은 모든 청소년들을 높은 혁명성과 강한 조직성, 규률성, 아름답고 건전한 도덕기풍을 체질화한 미래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용광로이다. 부모잃은 아이들일수록, 일시 길을 잘못 들었던 청년들일수록 더욱 뜨겁게 미치는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도, 보호속에서 청년들모두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청년교양육성의 가장 리상적인 토양이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청년들뿐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청춘의 기백과 열정으로 살며 투쟁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청년전위들의 선구자적모범은

온 나라를 영웅적창조정신과 투쟁기풍, 혁명적랑만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우리의 청년강국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강성번영을 담보하는 불패의 성새이다.

청년강국이 건설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력한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전면적으로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세상사람들은 청년강국의 위용과 더불어 머지않아 사회주의강국의 승전고를 높이 울리게 될 주체조선의 기상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

[2016-07-1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주체적통일로선이다.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무엇보다도**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민족자주로선이다.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은 우리 민족에게 있으며 하루빨리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건설하는 비결도 온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이다. 모든 사회적운동과 마찬가지로 조국통일운동도 주체의 준비정도와 역할에 따라 그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이 투쟁에서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개척해나갈 권리가 있다.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고 침해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만 민족의 세기적숙원인 조국통일이 하루빨리 앞당겨질수 있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민족이 지닌 자력자강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주장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민족자강력으로 이룩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한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의 위대한 생명력이 있다.

—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다음으로**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민족대단결로선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그러자

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통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기본원동력이다. 주체의 위력은 곧 단결의 위력이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라면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실현의 근본조건이며 결정적요인이다.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념원인것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선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대단결위업에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대단결만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 참된 애국의 길이라는것은 력사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의 강토에서 수천년동안 함께 살아온 하나의 겨레, 하나의 피줄을 갈라놓을수 없다. 계급과 계층의 서로 다른 주의주장과 리해관계도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로 될수 없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중시하며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간다면 능히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움으로써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고 그 위력으로 민족의 운

명을 개척해온 훌륭한 전통과 경험이 있다.

지금도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에는 백두에서 한나까지 서로 오가며 혈육의 정으로 껴안고 통일의 뜻으로 손을 맞잡던 6.15통일시대의 격정과 환희가 생생히 살아있다.

대결과 적대의 광풍이 아무리 사나워도 화해와 단합의 애국적열풍을 절대로 이길수 없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며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에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는 사상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이야말로 조국통일위업을 전민족적애국위업, 민족대단결위업으로서의 조국통일위업의 본성에 맞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애국애족적인 로선이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우리 민족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데서 민족자주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족자주정신은 민족을 강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다.

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지만 자

체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민족은 종당에 망국노의 처지에 빠지게 된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며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이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은 우리 민족사가 보여준 피의 교훈이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다단한 문제라고 하여도 반드시 우리 민족의 지혜와 슬기로 풀어나가야 하는것이 조국통일문제이고 외세의 횡포와 도전이 아무리 악랄하다고 하여도 오직 민족자체의 힘으로만 뚫고나가야 하는 길이 자주통일의 길이다.

자주의식이 민족부흥의 위력한 무기이라면 사대와 외세의존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위업을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피눈물나는 력사와 남조선이 세기를 이어 오늘도 외세의 식민지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비극적인

현실은 사대와 외세의존이 민족의 운명을 망쳐먹는 화근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며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다.

우리 당의 자주통일방략은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진로를 환히 밝히는 향도의 홰불이며 통일강국건설의 정확한 리정표이다. 험난한 투쟁속에서 피로써 찾고 새긴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진리가 집대성되여있고 통일된 강토에서 천년만년 복락을 누려가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이 응축되여있는 이 통일방략을 따르는 여기에 분렬의 장벽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하루속히 허물고 통일과 부강번영의 광휘로운 미래에로 나아갈수 있는 길이 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는 장장 70 여년에 걸친 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만방에 빛나는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방향과 방도가 환히 밝혀져있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 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대결의 장벽을 짓부시고 통일의 환희로운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총매진해나가야 할것이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

[2016-05-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는 사상을 천명하시고 민족대단결이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온갖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다.

온 겨레가 애국애족의 숭고한 민족적리념을 지니고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이 민족대단결이다.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은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다.

민족대단결이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라는것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

서는 모든 문제들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라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없다는것이다.

그러면 민족대단결이 왜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민족대단결이 다름아닌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이기때문이다.

모든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 그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은 주체의 주동적인 역할과 작용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에 갈라져 살고있는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자면 단결하여야 한다. 주체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다.

북과 남, 해외에 갈라져 살면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다르고 재산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강력한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으로 튼튼히 결속할 때 조국통일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온 민족이 단결된 나라는 절대로 굴복시킬수도 없고 먹을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견결히 맞서 싸우면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도전

이 아무리 발악적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단결의 위력으로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은 민족대단결에 의하여 담보되며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륭성번영의 결정적담보이다. 민족의 대단결에 민족의 살길도 있고 민족적존엄도 있으며 민족의 운명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의 대단결이자 조국통일이라고 하는것이다.

민족대단결이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족대단결이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70 여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의 장구한 조국통일운동사에 찬연히 빛나는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이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는 귀중한 철리이기때문이다.

실천은 진리의 기준이다. 지나온 조국통일운동실천과정에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귀중한 경륜과 전통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의 위력만이 통일위업의 성과적실현을 담보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나날에 마련된 민족적단합의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하나의 조국통일력량으로 결속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전민족적애국위업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포옹력과 애국애족의 용단에 의해 마련된 4 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1970 년대 전반기 조국통일 3 대원칙에 서명하자마자 돌아서서 한장의 종이장에 운명을 맡길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좋게 발전하던 통일운동정세를 격변시키고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려던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 조선》이냐 하는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사이의 대립이 날카롭던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대민족회의소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국통일 5 대방침을 제시하시고 하나의 조선로선의 기치밑에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조선민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단결의 위력으로 격폐상태에 있던 북남관계에 파렬구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0 년대에 북남관계의 현실과 민족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제시하시고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라는 북, 남, 해외의 3 자련대실현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반통일책동으로 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던 1990 년대에는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을 발표하시여 민족의 단합된 주체적력량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넓

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 그이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겨레에게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을 조국통일 3 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함께 조국통일 3 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을 제시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민족대단결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민족이 대국상을 당하여 온 강토가 피눈물의 바다에 잠기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몸부림치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범민족대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들어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색있고 크게 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제 5 차 범민족대회는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념원대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 겨레의 통일기운을 더한층 북돋아주며 민족단합의 새 장을 펼쳐나가는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0 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에로 확대발전하고 북과 남, 해외의 3 자가 모인 가운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 통일대축전 10 차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통일운동사상 3 자련대를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애국의 결단을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마련되였으며 이때부터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고 협력하여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는 6. 15 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궤도우에 올려세우시고 민족대단결의 새 경지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력과 무한대한 포옹력에 격찬을 금치 못하며 장군님을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민족주의자》, 《장군중의 으뜸장군》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단합과 통일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사상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과감히 나서고 조국통일운동이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자주와 단합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로고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신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은 우리 겨레가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또 한분의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여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조성된 정세와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을 제시하시고 주체적인 통일애국력량을 튼튼히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신

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보고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는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 위대한 통일경륜과 뜨거운 민족애가 넘쳐흐르고있다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우리 겨레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재도이췰란드동포 리준식은 재미동포전국련합회홈페지에 《자주통일강국의 새시대, 새 력사를 겨레와 세계에 약속한 제7차당대회》라는 표제밑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자주통일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고 격찬하면서《당 제7차대회에서의 사업총화는 꿈에도 그리던 자주통일강국을 휘황찬란하게 펼쳐놓고있다. 물론 래일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력사의 필연으로 가까운 날에 기어이 오고야말 통일이 우리 겨레의 진정한 영광이고 영원무궁한 축복이라는 사실만은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하였다.

민족대단결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며 민족대단결에 통일강국의 새날이 밝아온다.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어버이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